

잘못된 만남이 낳은 '홀로코스트'

히틀러 VS 비트겐슈타인

여기 두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인물은 평생 술과 담배, 육식(학대받는 동물을 보면 불쌍해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을 멀리했고 예술을 사랑했으며 사랑하는 여인만을 바라본 순정남이었지. 두 번째 인물은 주변 사람 다 정리될 초절정 예민함과 제로에 수렴하는 사교성, 부모 속 터지게 안 가도 될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그 뒤 교사로 부임한 학교에서 '체벌왕'으로 이름을 날리며 남의 부모 속까지 터지게 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어. 둘의 정체가 궁금하지? 순서대로 답을 공개하자면 바로 세기의 전쟁광이자 악마로 불리는 히틀러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천재 철학자로 칭송받는 비트겐슈타인이야. 놀라지 마~ 답 맞아. 자, 그럼 지금부터 '유대인 대학살'의 씨앗이 된 이들의 '잘못된 만남'을 들려줄게.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사진 위키백과

“레알슐레(오스트리아 린츠의 국립실업학교)에서 나는 유대인 소년 한 명을 만났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경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 히틀러

넌 왜 다 가진 거야(feat. 히틀러)!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내가 실업학교라니! 이게 말이 돼?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폭군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그림쟁이가 웬 말이나?'라며 내 꿈을 짓밟았고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겁 많은 어머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레알슐레 진학 후 난 행복하지 않았어. 여기 친구들이 내 예술혼을 이해하겠냐고! 위대한 작곡가 바그너의 4시간짜리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를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날 말야. 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 거지? (4시간 후) 헉! 다 외웠어! 저 괴물은 뭐야.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 재계를 주무르는 철강왕의 아들? 바그너에 버금가는 작곡가 브람스가 재네 집에서 연주회를 열고 형제자매 피아노 레슨을 봐준단 말이지. 슈만과 클라라도 오고. 뭐? 오스트리아의 국보급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도 저 집안의 후원을 받고 있어? 게다가 저 말투. 귀족인 척 잘난 척은, 역겹게!

선생님들도 저 아이 앞에선 꿈쩍을 못하네. 듣자 하니 천재라는데 진짜 천재인 거야, 돈의 위력인 거야? 철강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공부를 하러 이 학교에 왔다고? '두 자유유트!(이 더러운 유대놈아!) 난 유대인을 진심으로 증오해! 그들은 비열한 수법으로 부를 독차지했고 예술을 알지도 못하면서 더러운 돈으로 음악가와 미술가들의 환심을 사지. 두고 봐. 언젠가 내 힘이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세상 모든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리겠어.



* 지금까지 이런 TMI(Too Much Information)는 없었다!로 시작한 '알아 두면 있어 보이는 TMI' 독자 분들의 요청에 다시 시작합니다. TMI 시즌 2는 "재밌게 읽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까지 됐다"는 말에 '어쩌면 쓸모 있을'을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과학, 문학, 역사,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세기의 라이벌들로 재밌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저 즐겁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_편집자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오(feat. 비트겐슈타인)

누가 내 얘길 하나, 왜 이리 귀가 가렵지? 히틀러가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인 걸 알았느냐고? 몰랐어, 주목을 끌 만한 친구가 아니었거든.

아, 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잠시 내 소개를 하지. 난 현대 영미철학의 최고 슈퍼스타로 불리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야.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긴 썩스럽지만 믿을 만한 곳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라고 하더군.

나를 잘 몰라도 내 어록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철학의 목적은 파리에게 자신이 갇힌 병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게.

꽤 잘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너무 겸손했나?) 부와 명예는 언제나 내 관심 밖이었어. 철학적 사유만이 날 매료시켰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전 재산을 친구들과 예술가들에게 기부하고 정원사, 초등학교 교사, 약품 배달 사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어. 1차 세계대전 때는 모두가 말렸지만 자원해서 참전하기도 했고, 더 놀라운 건 전쟁을 치르며 집필한 <논리 철학 논고>가 내 대표 저서라는 거야. '놀라운 나' 같으니라고!

듣자니, 히틀러는 미대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군대에 들어가 권력을 잡은 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아닌 레알술레가 있던 린츠에 '아돌프 히틀러 박물관'을 세웠대더군. 또 굳이 린츠에다가 제철소를 세우고 우리 가문의 공장을 흡수했다지 뭐야. 내게 느꼈던 콤플렉스가 대단하긴 했던 모양이지. 불쌍한 영혼 같으니라고 찝찝...

몸과 마음을 다해 철학을 실천했다고 자부하는 난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 듣자 하니 히틀러 저 친구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던데, 혹자는 그러더군. 히틀러가 어린 시절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기형적인 콤플렉스를 키우지 않았다면 역사는 좀 다르게 흘러갔을 거라고.

그렇다고 히틀러의 악마 같은 행위가 조금이라도 이해받으신 곤란해. 대신 이런 끔찍한 역사가 반복돼서도 안 될 거고, 이 철없는 친구에게 연락을 한 번 해봐야겠어. 비록 삶을 마감한 후지만 이제라도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려 내 위대한 사상을 좀 들려줄까 해. '귀 열어라~ 철학 들어간다' 하며 말이지. @



레알술레 재학 당시의 히틀러와 비트겐슈타인.